23011946 박광석  
김부일ㅠㅠ 팀

AOU 팀은 로그인을 통해 각자의 일정을 짜주고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를 만들었는데,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내가 인공지능한테 이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짜줘라고 하면 AI가 자동으로 일정을 짜주고 캘린더에 보기 쉽게 연결해준다는 부분이다. 그 외에도 캘린더를 주 단위, 그리고 시간 단위로까지 계획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.

TRUE LOVE 팀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MBTI를 이용하여 이용하기 쉽게 많든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 GPT처럼 감정없이 해답만 주는 챗봇과는 달리 말투, 성격 등 사람과 비슷하게 대화가 가능한 챗봇이란 것이 놀랍다;

레전드나인 팀은 코로나가 풀리는 시기에 맞춰 여행 계획을 세워주는 AI를 생각한 것이 대단했다. 처음 설명을 보았을 때는 추천 장소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줄 알았다. 그런데 그뿐만 아니라 동선까지 추천을 해준다는 부분이 놀라웠고, 추가로 날씨 정보까지 알려주는 시스템을 넣는다는 것이 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다.

일이삼사 팀은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. 평소 옷을 살 때 이게 과연 나에게 맞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러한 AI가 생긴다면 옷을 살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 좋겠다고 생각했다.

척추수술2300만원 팀은 아두이노 젯슨나노 등 여러가지 기술들이 완벽히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다. 이러한 기술이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지갑에 23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거 같아 좋다고 생각이 든다.

칙칙폭폭 팀은 AI가 퍼스널 컬러를 찾아준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흥미로웠다. 그리고 간단하게 사진만 업로드 하면 된다는 것이 놀랍고 일이삼사 팀의 AI와 합쳐진다면 더욱 완성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.